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# 미 컨설팅사 PwC, 향후 보험산업 이슈 발표

- 미국 컨설팅 회사 PricewaterhouseCoopers(PwC)는,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로 감독제도 개선, 정부개입 증가, 세법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보험산업은 불확실성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.
  -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9가지 요인들을 정리하였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보험 및 금융산업에 대한 연방정부 감독강화 등을 언급함.
  - 미국의 보험산업 감독은 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방정부에 대한 보험산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보험기구(Federal Insurance Office)의 설립이 논의되는 등 연방정부 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  - PwC는 또한 5년 후에는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대형사 위주로 보험산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함.
- PwC는 향후 보험산업이 직면하게 될 9가지 이슈들로 인수합병의 증가, 보험상품 구성의 변화, 영업구조의 변화, 조세제도의 불확실성, 재무보고 형태의 변화, 경영진 보상체계 변경, 공공과 민간 부문의 구분 모호, 재보험산업의 불확실성 등을 지목함.
  - 미국보험산업에는 수많은 보험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대형사에 의한 인수합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, 이러한 통합화는 자본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를 강화해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.
  -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보험사들이 보증리스크, 높은 설계사 수수료 등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판매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며, 리스크가 큰 사업부문을 정리하거나 사업 지역을 축소하는 등 영업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됨.
  - 외부적으로는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로 인한 조세제도의 변화,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무보고 형태 변화, 경영진에 대한 보상 제한 등이 예상되며 정부구제금융, 감독제도 변화 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함.
  -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의 수요 감소로 재보험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, 이는 전체 보험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.

(Insurance Journal, 12/8)